

교수의 학술연구를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의 활성화

허 속

인천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관리부장



1. 대학사회의 변화와 교수의 연구 활동

현 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이다. 거의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나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도 지금까지 경제와 산업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던 시대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사회, 정보사회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던 냉전과 대립의 질서가 종식되고, 국가간의 모든 부분에서 개방과 세계화라는 방향으로 이행해 가고 있

다.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는 국가간 상호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부분에서 무한경쟁이라는 이원적 논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대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 상아탑이란 이름 아래에 사회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학문적 원리 추구가 대학의 주된 임무로만 여겨져 오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대학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스스로 창조적인 역할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대학의 개방과 국제화로 인한 세계 유명 대학들과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넓어졌지만, 동시에 UR 협약에 따른

대학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학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며, 그것은 오직 대학의 본질인 교육활동과 학술연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각 대학은 소속 교수들의 학술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학문 발전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의 학술연구의 질적 향상은 곧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열의와 노력에 달려있고,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해당 학문 영역의 변화와 발전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교류를 나누면서 학문 연구의 경향을 놓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학문연구는 연구실에서 고립되어 이루어지기보다는 해당 영역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최신의 국제적인 움직임을 빨리 획득하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첨단 경쟁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국내·외 학문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글에서는 우선 교수들의 국내·외 학문적 교류활동의 형태와 유형을 살펴보고,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를 기반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활동 교류지원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중에는 이전부터 실시되어 오던 프로그램이 많지만,

특히 올해부터 학문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한다면 목적한 연구계획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학술연구를 위한 교류활동의 형태와 방법

교수들이 자신의 학문영역에서 최신의 첨단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학술활동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의 새로운 연구 동향과 첨단의 이론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최신의 학술저널을 빨리 접할 수 있게 한다든가, 직접적인 유선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도 하며, 더 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학술대회에 직접 참여하여 발표 논문의 학술적 경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해외 학자들과 교분을 넓게 하는 일도 필요하게 된다. 더 바람직하기는 외국의 일류 학자들 또는 우수 연구소와 장기간 연구에 함께 참여하거나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술교류 활동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1)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의 참가 및 개최
 각 학문 분야는 대체로 몇 가지의 세계적인 학술모임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거나 토론에 임하는 일은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학문적 연구나 동향을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더구나 같은 학문 분

야의 외국 학자들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가지며 정보를 교환하고 교분을 갖는 일은 학자로서는 연구의 시야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에 자주 참여하기에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다면, 주변 몇 개국이 함께 정보를 나누는 심포지엄 형태의 모임을 개최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분야의 저명 학자를 초빙하여 집중강의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그 분야의 학자들이 활용하는 모임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해외 교류 연구

국내 학자들이 선진 과학기술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기술의 현장에 직접 가서 습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도 단 며칠간의 학회 모임이나 관광과 같은 방문보다 최소 일 년 이상의 체류를 통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에는 물론 학업을 위한 유학의 방법이 대표적이지만, 이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에게는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이나 해외 대학에의 교환교수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그리고 일부 기업의 문화재단 등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대학별로 이러한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간 협력연구의 추진

학문과 기술의 깊고 세밀한 부분은 단순한 관찰보다는 직접 해당 연구에 참여해 봄으로써만이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만한 학문교

류의 형태는 선진 외국의 일류 연구진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다. 다소의 비용을 우리가 직접 부담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연구는 상호간에 전문 기술의 전수가 가능하고, 또 그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국제간 공동연구는 교수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4) 해외 정보의 신속한 입수

학문연구에서 정보는 생명이다. 더구나 첨단 기술학문을 연구하는 데 정보를 어떻게 빨리 정확히 입수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적인 학술연구의 관건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주로 도서관을 통한 도서의 입수로 해결하였으나, 이제 학술정보는 단순한 도서정보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만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관한 정보까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에 새로 설치될 첨단 학술정보 센터가 새로운 학술정보 제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3. 국내·외 학술연구 교류활동 지원사업

1) 국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

① 학회를 통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대학교수간 상호 학술활동 교류는 대부분 학회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회 모임은 학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류는 물론 자신의 연구활동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발표함으로써 확인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회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대학 교수의 학술활동을 평가하는 한 가지 지표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교수들의 이러한 학회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하나는 학회나 대학 부설 연구소가 개최하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학술대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술대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매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995년도에는 약 8억 원의 예산으로 184개의 학술대회를 지원하였으나, 1996년에는 배에 가까운 13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 학회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들의 학회 활동을 장려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발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의 경향은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연구 결과물을 관련 전문학회의 학술지에 발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들 학술지의 발행 비용을 일부 보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술 발전의 양대 축은 교수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그 결과물의 상호교류를 위한 학회 활동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학회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고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간 국내교류 연구지원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지원은 국내 대학간의 협력과 학문교류 증진을 꾀하고, 대학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며, 교수 개인에게는 학문 발전과 연구 의욕의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주관

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수의 국내교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초빙교류와 파견교류로 나누어진다. 초빙교류는 초빙을 희망하는 기관의 장이 특정 인사를 선정하여 초빙의 조건을 제시하고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교류하게 되는 경우이며, 파견교류는 희망 교수가 타대학이나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파견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교류 근무한 일이 없는 사람이면 된다. 대학교수의 국내교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유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1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또는 협의에 따라 6개월간의 교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류교수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1995년도부터 다소 인상되어 인문·사회 분야는 500만 원까지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는 700만 원까지 연구과제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점차 지원자 및 선정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는 1995년부터 같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연구지원액을 상향 조정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1996년도에도 약 30명 내외의 교수 국내교류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국내 대학간의 학술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많은 활용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외 학술교류 활동 지원

① 교수 해외파견 연구지원

대학교수의 연구 수준 향상과 선진 학문 및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술진흥재단

이 1년간 해외 유명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 항공료와 체재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외국에서의 단독연구, 외국 학자와의 공동연구, 외국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한 파견, 그리고 국가적 목적에 따른 특수목적 파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교수들의 자유로운 공개 경쟁에 의해 선정 지원되고 있다. 교수들이 직접 장기간 해외의 대학이나 연구소에 나가 목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문적 교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연구를 위하여 지원되는 액수는 파견되는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필요한 항공료와 정착준비금 이외에 월 1,500불(미화 기준)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도에는 총 27억 원의 예산으로 150명 내외의 파견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996년에는 다소 증가된 32억 원의 예산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국제협력 및 외국과의 공동연구 지원

국제간 학술정보를 교류하고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학자와 외국 학자의 공동연구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목적의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국제협력 연구 지원, 국제공동 연구지원, 학자교류 지원 등 몇 가지 별도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부터 신규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개혁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에 약 30개 과제, 외국 유명 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 약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그 요건과 연구 지원의 규모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 연구과제당 2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규모로 1년 연구에서 최장 3년 연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자의 교류는 독일이나 일본 등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학 지원의 경우는 해외에서 한국학 강의를 담당하게 될 교수를 선발하여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이러한 학자 교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호주와도 새로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③ 국제 학술회의 참가 및 논문게재 지원

교수들이 첨단 학문적 경향을 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세계의 여러 학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국제적인 학술회의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의 국제 학술회의가 자주 열리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소간의 경비가 필요하게 마련이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 1인당 연간 1개 대회 참가지원을 원칙으로 미화 1,500불 한도 내에서 참가국까지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 1995년도에는 약 4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으나, 1996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500명 정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이 우수한 학술연구 논문을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 발표하는 일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

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논문의 게재료와 별쇄본료, 발송료, 수수료 등 기본 비용(50만 원 한도)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수들의 국제적인 학술 활동의 수준을 향상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학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중이다.

④ 외국 학술문헌 번역 및 학술정보 제공
 첨단 학술연구의 생명은 빠른 정보의 수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얼마나 최신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연구의 가치를 배가시킬 수도 있고, 또 무의미한 연구 결과로 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학술연구를 위한 보다 빠른 학술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학술진흥재단은 지금까지의 학술자료부를 학술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정보의 종류와 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 학술문헌의 번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외국 학술지를 수집하여 대학 도서관에 보급하기도 한다. 또한 논문 초록집이나 색인집, 합본집, 외국 학술지 목차속보, 학술연구 정보총람 등 각종 학술정보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에 열거된 여러 정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공공 교육 전산망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맺는 말

한 나라의 부와 빈곤의 척도를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나타내던 시대는 지났

다. 이제 선진 국가의 지표는 물자의 생산과 소득의 수준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오히려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유, 정보의 축적 정도, 지식과 학문의 선진성 등이 한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장 크게 책임지고 선도하게 될 역할은 물자의 생산을 담당하던 산업현장으로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수들의 학문연구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대학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를 갖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 사회의 우수 연구인력의 대다수를 대학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첨단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대부분은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교수들은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강의부담이나 대학의 열악한 연구 여건, 자료나 도서 구입의 어려움, 연구비의 빈곤 등으로 제대로 연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필요한 연구 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아무리 우수한 연구 인력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연구 활동의 지속이 없거나 관련 학문세계와의 계속적인 교류가 없을 때는 곧 뒤떨어져 첨단 학문의 대열에서 낙오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학술연구 지원 수준은 선진 외국의 경우에 비해 너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학문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이 국가 발전의 정책적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수들 자신도 열악한 연구 여건

을 탓하며 안주하기보다는 개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도 일부 교수들은 정부 기관이나 일부 기업 또는 사회단체에서 교수의 연구지원을 위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아직 그 액수나 규모가 빈약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지원 기관들을 적극 활용할 때 교수들의 학술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교

수 개인의 학문적 성장은 물론 우리의 학문 수준을 세계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허 숙/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인천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관리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육과정과 목적』, 『교사교육의 현실과 전망』 등이 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
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
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
정·보완할 수 있습니다.